

◆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3급)

1. 다음 한자의 독음을 쓰시오.

- (1) 品切 (2) 補修 (3) 霜菊 (4) 假飾
- (5) 威脅 (6) 奴婢 (7) 貯蓄 (8) 勇猛
- (9) 戀慕 (10) 爭奪 (11) 銳利 (12) 淫亂
- (13) 亦然 (14) 蘭草 (15) 丹楓 (16) 興隸
- (17) 韻尾 (18) 疑惑 (19) 漸騰 (20) 背景

2. 다음 한자의訓과 音을 쓰시오.

- (1) 懲 (2) 操 (3) 睦 (4) 透
- (5) 聰 (6) 屢 (7) 那 (8) 享
- (9) 奈 (10) 羽 (11) 誦 (12) 豫
- (13) 儉 (14) 散 (15) 寢 (16) 皆
- (17) 紋 (18) 蝨 (19) 澤 (20) 冊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 (1) 우리나라도 점차 노년(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 (2) 그는 (파관)에 지쳐 아내를 좋아할 수 없다.
- (3) (근면)한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 (5) 감정이 (폭발)하다.

4. 다음 訓과 音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 (1) 성품 성 (2) 정사 정
- (3) 생각할 려 (4) 기릴 찬
- (5) 임금 제

5. 다음 한자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 (1) ( ) ↔ 昔 (2) 送 ↔ ( ) (3) 夫 ↔ ( )

6. 다음 한자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賓 - ( ) : ① 各 ② 客 ③ 者 ④ 匹
- (2) 養 - ( ) : ① 教 ② 訓 ③ 逆 ④ 育
- (3) ( ) - 驗 : ① 試 ② 英 ③ 施 ④ 獨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 (1) 克己( )禮
- (2) ( )陵桃源
- (3) 角者無( )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쓰시오.

- (1) 事故 - ( ) : 생각함
- (2) 憂愁 - ( ) : 특별히 뛰어난
- (3) 貢稅 - ( ) : 공격하는 형제

9. 다음 한자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 (1) 熟慮 - 곰곰이 잘 ( )함(조건:2음절)
- (2) 當然 - ( )함(조건:2음절)
- (3) 盤石 - 넓고 ( )한 바위(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 (1) 斷 (2) 監 (3) 黨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물일곱번째 마당)



● 재미있는 한자성어 ●

호연지기(浩然之氣)

(넓을 호, 그럴 연, ~의 지, 기운 기)

직역 : 인격의 이상적 기상(氣象). 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

의역 : 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元氣). ②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

맹자가 제자인 공손추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르네." "무엇을 호연지기(浩然之氣)라고 합니까?" "말로 설명하긴 힘들네. 기(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데 여기에 의(義)를 모아 잘 길러서 해로움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차 크게

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호연지기는 정도(正道)와 정의(正義)가 합쳐지고 쌓여서 만물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실하고 강인하게 지라도록 이끄는 힘이 되지. 자네는 반드시 의로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지 말고, 마음을 망령되게 갖지 말며, 억지로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게. 예를 들면 송(宋)나라의 농부처럼 무슨 일을 무리하고 조장(助長)하려고 해서선 안된단 말일세."

조장(助長)

(도울 조, 길 장)

직역 : 도와서 자라나게 한다는 뜻.

의역 : 좋지 못한 행위나 습관을 조금씩 키우려다 오히려 망친다는 경계의 뜻을 지닌 말.

맹자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자기 논이 모가 좀처럼 잘 자라지 않자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까 하고 궁리한 끝에 손으로 모를 하나씩 뽑아서 넣어주었지. 그 많은 모를 하나하나 뽑아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가. 농부가 된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파근해. 내가 모가 자라나게 해주고(助長) 왔지."

이들이 놀라 논으로 뛰어가 봤더니 모가 이미 말라 죽어 있었다네.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부터 기(氣)를 기르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내버려두는 것도, 그렇다고 기(氣)를 무리하게 길러 그 성장을 조장하는 것도 모두 좋지 않다는 말일세.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란 억지로 조장(助長)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겨울의 절기 :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겨울 '冬(동)'의 의미는 본래 끈을 묶은 모양으로 계절의 끝인 겨울을 상징하여 추위의 표현인 얼음 빙(氷)의 의미를 넣어 만든 글자이다. 죽음과 암흑의 상징이면서 또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암시해 주고 있다. 겨울의 추위는 다음해 농사의 풍흉(豐凶)을 점치고(삼한사은(三寒四凍)이면 풍년, 이상한동(異常寒冬-정상을 벗어난 따뜻한 겨울)이면 흉년), 조상에게 모제(奠祭)를 올리는 시항(세는 시기이기도 하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로 겨울을 표현하는데 이는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통과의례로 겨울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겨울은 오행(五行)의 수(水), 방위는 북(北), 오색(五色)은 흑(黑)에 해당한다.

입동 (立冬)

立冬(입동)은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0월의 절기(節氣)로 태양이 황경(黃經) 225도에 위치한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11월 8일경이다. 옛 문헌에 입동 기간에는 물이 비로써 얼고, 땅이 처음 얼며, 꿩은 드물고 조개가 잘 잡힌다고 한다.

소설 (소설)

소설(소설)은 입동(立冬)과 대설(大雪)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0월의 중기(中氣)로 태양이 황경 240도에 도달한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11월 23일경이다. 이 시기는 첫 겨울의 추위가 보여 눈이 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옛 문헌에 소설 기간에

는 무지개가 겹쳐 나타나지 않고, 천기(天氣)가 올라가고 지기(地氣)가 내려오며, 천지가 얼어 생기가 막혀(閉塞) 겨울이 온다고 한다.

대설 (대설)

대설(대설)은 소설(小雪)과 동지(冬至)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1월의 절기(節氣)로 태양이 황경 255도에 이른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12월 7일경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라는 의미이지만 실제 추운 계절은 동지(冬至)를 지나서부터이다. 옛 문헌에 대설 기간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밤이 교미하여 새끼를 낳고, 여자가 돌아온다고 한다.

동지 (동지)

동지(동지)는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1월의 중기(中氣)로 태양이 황경 270도에 도달한 날이고 이 날은 태양이 황도의 최남단(남회귀선)에 위치해 낮이 가장 짧고 양력(陽曆)으로는 12월 22일경이다. 동지는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의 역법(曆法)에서 역(曆)의 기산점(起算點)이 되기 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해졌고, 또한 24절기 중에 직접적인 풍습이 가장 많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전통의 풍습에 원단(元旦)과 함께 동지를 으뜸가는 축일(祝日)로 쳐서 궁궐에서도 화례연(會禮宴)을 펼치고 동지사(冬至使)를 중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동지절식(冬至節食)을 먹었는데, 붉은 팔로죽을 쑤어 그 속에 찹쌀로 웅시미

또는 새알심이라는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어 먹고 또 역귀(疫鬼)를 쫓는다는 의미로 팔죽 국물을 백이나 문에 뿌렸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음해의 달력을 관상감(觀象監)에서 '동문지보(同文之寶)'라 하여 임금에게 올리고 임금은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소한 (소한)

한 소한(소한)은 동지(冬至)와 대한(大寒)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2월의 절기(節氣)로 태양이 황경 285도에 도달한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1월 6일경이다.

절기의 명칭으로는 다음의 절기 '대한(大寒)'이 더 춥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는 소한(小寒) 때가 더 추워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옛말이 생겨났다. 옛 문헌에는 소한 기간에는 기러기가 돌아오고, 까치가 집을 짓고, 꿩이 운다고 한다.

대한 (대한)

대한(대한)은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12월 중기(中氣)로 태양이 황경 300도에 위치한 시기이고 양력(陽曆)으로는 1월 21일경이다. 이겨울 추위의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의 대한(大寒)이지만 실제로는 소한(小寒) 때가 더 춥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말이 있다.

대한의 마지막 날이자 입춘(立春) 전날인 절분(節分)에는 풍을 방이나 마루에 뿌리면서 마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 )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보기>

- ① 作 ② 準 ③ 路 ④ 程

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程)이 어렵게 되었다. 나. (준)비가 칠저하면 실수가 적어진다. 다. 그 길은 (노)점성들로 인해 혼잡했다. 라. (작)가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全		小	
	나라 국		지을 작
		農	消
은 은		취할 취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3급)정답◆

- (1) 품질 (2) 보수 (3) 상국 (4) 가식 (5) 위험 (6) 노비 (7) 저축 (8) 용맹 (9) 연모 (10) 쟁탈 (11) 예리 (12) 음란 (13) 역연 (14) 난초 (15) 단풍 (16) 여례 (17) 운미 (18) 의혹 (19) 점등 (20) 배경
- (1) 징계할 징 (2) 잡을 조 (3) 회복 할 목 (4) 사무칠 투 (5) 귀찮을 총 (6) 여러 루 (7) 어찌 나 (8) 누릴 향 (9) 어찌 내 (10) 깃 우 (11) 월 승 (12) 미리 예 (13) 검소할 검 (14) 흘을 산 (15) 잘 침 (16) 다 개 (17) 무늬 문 (18) 반딧불 형 (19) 못 태 (20) 책 책
- (1) 離婚 (2) 疲困 (3) 勤勉 (4) 區域 (5) 暴發
- (1) 性 (2) 政 (3) 慮 (4) 讀 (5) 帝
- (1) 今 (2) 迎 (3) 婦
- (1) ② 客 (2) ④ 育 (3) ① 試
- (1) 復 (2) 武 (3) 齒
- (1) 思考 (2) 優秀 (3) 攻勢
- (1) 생각 (2) 마땅 (3) 평평
- (1) 斷 (2) 監 (3) 黨